

“배심원단 잡아라” 예비후보들 사활

국민의당, 광주 경선방식 ‘숙의배심원단제’ 결정 규모·구성 어떻게 될지 촉각...공정성 우려도

국민의당이 4·13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방식을 광주지역만 ‘숙의(熟議) 배심원단제’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예비후보들이 배심원단 잡기에 촉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심원단이 사실상 공천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캠프를 총동원해 ‘숙의배심원단제’ 준비에 ‘올인’하고 있다.

숙의배심원단제는 후보들간 토론이나 연설회를 연 뒤 배심원단이 평가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의당이 배심원단 모집에 나서고 있다.

배심원단 규모는 당 시행세칙에 100명 규모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200명설이

유력하게 퍼지고 있다.

배심원단 구성도 일반시민 100%, 일반시민 50%+시민사회 50%, 시민사회 100% 등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비후보들은 공천 당락을 결정할 규모나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특히 배심원단 확보가 공천과 직결된다고 보고 배심원단 확보에 촉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예비후보들은 지지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지금 국민의당 숙의배심원단 모집전화가 02(서울) 번호로 옵니다. 국민의당 지지자 혹은 무당층(지지정당없음)을 대상으로 모집 중이다”면서 “끝까지 응대해 꼭 배심원단 모집에 응해주시고 배심원단에 선정되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각 예비후보들이 배심원단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배심원단들이 노출될 경우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유독 광주에만 숙의배심원단제 경선을 도입하면서 후보들 사이에서 배심원 확보가 경쟁이 되고 있다”면서 “경선 성공의 관건인 배심원단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배심원단의 공정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더민주 2차 컷오프 발표
더불어민주당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정문관에서 현역의원 2차 컷오프 등 공천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30만원·노인 일자리 수당 40만원 등 野 경제·민생공약 실현 가능성 논란

새누리당이 당내 갈등으로 주춤하는 사이 야당들이 일제히 경제·민생 정책을 제시하며 공약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천문학적 재원이 들어가는 공약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공약을 제시하며 이어 10일엔 ‘더불어 경제콘서트-드림(The Drea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은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배로 늘리고 노인일자리수당을 40만원으로 올리

는 공약을 내놨다.

더민주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경제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날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배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4·13 총선 10대 노인 공약을 내놨다.

장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2014년 기준 전체 노인 인구의 5.6%에 그

친다”며 “보건복지부 사업 중 노인돌봄서비스와 통합해 2020년까지 수급 대상자를 2배로 늘리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노인에게 사회 활동 기회와 임금을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당을 지금의 월 20만 원보다 2배로 늘리고, 현재 가장 9개월인 일자리사업 참여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도 전날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5시 칼퇴근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0년까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에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박지경기자 jikpark@kwangju.co.kr

13 총선 현장

권은희 “후쿠시마 원전 오염실태 공개해야”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 을) 의원은 10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5주기와 관련, “5년이 지났는데도 사고 원자로 내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내 핵연료 또한 마친가지”라며 일본의 원전안전대책과 사후조치에 대해 강력 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제라도 방사능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주변 토양 오염 실태를 공개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내현, 이의 신청...무소속 출마 시사



국민의당 첫번째 컷오프 대상이 된 임내현 의원은 10일 당 결정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예회복을 위해 이의신청을 했다. 최고위원회의 공천배제 결정을 전화로 통보받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며 “구태정치의 망령이 광주를 뒤덮고 있지만 아직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유선호 “목포 온금·임성지구 개발 지원”



국민의당 유선호 목포 예비후보는 10일 활기 넘치는 목포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4·13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이날 “목포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충실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총선 공약으로 ▲온금지구 재개발사업·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위한 지원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및 유원지 개발·면세점 확대 ▲도시재생 사업·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을 내놨다.

이형석 “광주 산업구조 다변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 을 예비후보는 10일 광주의 미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기구축과 뿌리산업 및 광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지역경제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모든 산업의 근원이 되고 있는 금융·주조·융합·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을 육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용빈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주 광산 갑 예비후보는 10일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열린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공립산후조리원 신설,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세대에 혜택 등 방법을 통해 산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에너지밸리 융·복합 정책 펴야”



국민의당 손금주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10일 나주 빛가람동주민센터를 방문, 주민자치위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빛가람 혁신도시는 국책사업이나 정권이 바뀌면서 수도권 1급 중심정책의 다극화 정책으로 전환이 둔화돼 경제침체와 함께 활성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후보는 이날 “전남 에너지산업육성 10개년 계획과 광주에너지밸리조성계획, 한전에너지밸리조성계획 등을 융·복합해 체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동진 고흥·보성·장흥·강진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곽동진 고흥·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는 10일 4·13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곽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저에게 정치를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놓지 않은 세 가지 꿈이 있다”면서 “호남차별 해소와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 고향 발전 등 세 가지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호남 차별 없는 사회와 함께 잘 사는 동반성장 사회”를 만든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선거구 변경 홍보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남 을 예비후보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변경 지역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구 확정안으로 인해 변경된 선거구 수는 전국적으로 102곳”이라며 “광주시의 경우 동구와 남구를 합해 동남 갑과 동남 을로 나뉘어졌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유권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진태, 더민주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홍진태 전 광주시 문화정책 실장이 광주시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자로 최종 확정됐다. 10일 더민주에 따르면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 여론조사(안심번호 이용한 휴대전화 ARS 방식)에서 홍 예비후보가 임택 광주시의원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2곳이 참여했으며 한 여론조사 기관당 동구 주민 600명(표본)씩 모두 1200명이 참여했다. 홍 후보는 신진 가점(10%)을 받았지만 임 후보는 선출

직 공직자의 임기 중 출마에 따른 감점(10%)을 받은 것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48시간 이내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에 해당 결과를 보고한다. 당 대표는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공천장을 준다. 홍 후보는 “맛과 품격이 있는 문화공동체 동구를 실현해 젊은이 돌아오는 곳, 일자리와 소득이 넘치는 풍요로운 곳을 만들겠다”며 “임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수용하고 더민주의 승리를 위해 앞으로 행보도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충형기자 golee@kwangju.co.kr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맥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Special atmosphere Special taste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평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화~일, 휴일	14,500원	9,000원	5,500원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가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서울대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고품격 결혼정보회사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여		남	여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72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6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신 여성 희망	33~4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사, 명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통	27~36세	자영업, 가사	35~60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웨이브빌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